

오늘의 스웨덴

玄 雄

〈스웨덴原子力會社 고문〉



수많은 神話와 무용담으로 가득차 있는 북구의 나라. 이 나라 곳곳에서 그들의 격렬했던 과거와 이웃 열강과의 끊임 없었던 투쟁과 역경의 흔적들을 누구나 목격하게 된다.

또한 용맹스러운 바이킹들이 남겨 놓은 묘지며 요새며 회미해진 묘비의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三國時代에 해당하는 당시 그들의 활약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中世期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城을 보고 있노라면 최강의 군사력으로 유럽 최고의 고대 국가의 위세를 떨치던 그 당시 스웨덴의 모습을 능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찬란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의 스웨덴은 평화롭고도 인도주의적인 국가로 변모해 있다. 최근 수십년간 스웨덴정부는 군사력의 과시나 팽창 보다는 국민 대중의 복지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모범적인 복지 국가”의 면모는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구역, 인도적인 복지 및 敎導 행정, 독특한 조세균등정책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수한 부유층이나 극빈층은 찾기가 힘들며, 의료혜택은 전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되고 있다. 직장여성이 임신하면 240일 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그 외에도 어린이의 양육비가 매일단위로 지급된다.

스웨덴 사람들의 첫인상은 복구의 겨울만큼이나 어둡고 침울할 때가 많다. 그들의 내성적이고도 딱딱한 태도는 사귀어 보면 점점 부드러워진다. 그들 만큼 인간적이고도 친절한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이 나라는 또한 性의 자유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의 역사는 Sveal族이 득세한 5세기부터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바이킹시대에는 (800~1050 A. D.) 강대해져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로 이어지는 海路를 점령해 유럽의 해안선을 장악하는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였다.

스웨덴의 국가적인 통일은 비교적 늦어 1592년 Gustav vasa라는 귀족이 그 땅의 덴마크인들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름으로써 비로소 실현되었다. 그는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당시 카톨릭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건전한 新敎국가의 기반을 다져 놓았다.

그의 손자인 Gustav Adolphus는 1611년 왕위에 오른 후 과학, 교육, 광업 및 무기산업의 육성을 체계화시키고 발틱海 東岸까지 영토를 확

장했다.

이러한 스웨덴제국의 융성도 1721년까지의 北歐大戰爭(Great Nordic War)에서 덴마크, 색소니-폴란드, 피요트르대제가 이끄는 러시아軍들의 협공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1722년 입헌정부와 강력한 四院制의 의회(귀족, 사제, 시민, 농민)가 수립됨으로써 2개의 정당이 출현하게 되었고, 스웨덴은 과학, 문화, 농업, 공업 등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어 1766년에는 언론의 자유가 선포되었고 1803년에는 세계 최초의 토지개혁이 단행되어 분산된 농지소유권을 합병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스웨덴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고 곧 이어 Jean-Baptiste Bernadotte 라는 前 프랑스장군이 이끈 스웨덴 군대는 라이프찌히 전투에 참가, 나폴레옹軍을 격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을 계기로 Bernadotte는 스웨덴 왕위에 올랐고, 현 국왕인 칼·구스타프 16세가 바로 이 프랑스장군출신 국왕의 직계후손이다.

Bernadotte는 스웨덴을 현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한 장본인으로 현재 스웨덴의 교정책의 기본노선인 中立主義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외교노선 때문에 그들은 두번의 세계대전에서 中立的 입장을 취하였고, 현재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 구주공동시장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中立노선에 한국도 여러차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스웨덴정부는 군대 대신 고도의 기술을 지닌 의료단을 파견하여 민간인 부상의 치료를 맡아주었다. 또한 스웨덴외무부의 막후 교섭으로 베트남에 억류되었던 한국의 외교관들을 석방하게 한 적도 있다.

스웨덴은 또한 제3세계와 공산권국가들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전혀의 교 및 무역관계가 없는 이들 국가와 교역을 원할 경우,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스웨덴은 충분히 한국의 입장을 도와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평양과의 대화를 트려는 우리의 노력에 커다란 촉매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그들의 외교수완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명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1844년 Gustaf Pasch가 발명한 안전성냥, 1867년 알프레드·노벨의 다이나마이트, 1889년 Gustav Laval의 증기터빈 발명과 1896년 우유 제조기 발명 등이 그 예이다.

사실 스웨덴의 오늘날의 번영은 그들의 뛰어난 공업경쟁력과 끝없는 연구·개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들은 자체 내에서 만들어 낸 발명품들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다이나마이트를 토대로 Nitro Nobel社가 창설되었고, LM Ericsson은 원격통신장치로, Stal-Laval은 터빈과 정밀기어로, ASEA-ATOM은 비등식 경수로 핵에너지시스템(BWR Nuclear Energy System) 등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스웨덴은 매년 세계의 새로운 과학지식에 1~2%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800만 밖에 안되는 그들의 인구를 고려해 보면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연간 스웨덴 수출총액의 43.6%가 기계류나 교통설비 같은 고급 공산품인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스웨덴의 수출목록에는 스키회전활강경기의 세계챔피언인 Inemar Stenmark와 웜블든 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세계의 테니스무대에서 맹위를 떨친 Bjorn Bory도 빠질 수 없다. 과거 세계의 영화팬들은 그레타·가르보, 잉그리드·버그만, 잉계마르·베르히만 등이 이루어낸 영상의 美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매력적인 프리마돈나 Brigit Nitsson의 경이로운 음성은 전 세계 오페라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ABBA의 대중 가요와 슬로우·락의 리듬은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스웨덴의 세계문학에 대한 공헌으로는 다이나마이트 발명가인 알프레드·노벨의 1895년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노벨상 말고도 극작가 August Strindberg의 활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리여사'(Lady Julia), '아버지'(The Father), 그리고 '지옥'(Inferno)의 세계적인 작가이며 시각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극적소재의 실험적 시도를 통해 현대연극에 있어 변화의 황을 연 작가이기도 하다.

스웨덴 사람들은 끝잘 이런 말하기를 좋아한다. "바이킹 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